

기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와 그들은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게 되면 으레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보게 된다.

서울 강남에 사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심지어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동에 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해진 현실에서 주거지의 위치는 물론, 형태와 크기는 빈부서열을 나누는 척도가 되어버렸다.

그러한 경우 대부분 물어본 사람이나 대답을 하는 사람 모두 심각하지 않다. 그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물어보는 단골 질문거리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거이동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고 싶은 욕망은 당연한 심리이다.

주택지들이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를 지향하며

반면 빗장지르기(gating)는 공간을 분리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주거분리로 인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에 '소셜믹스'(social mix)의 개념이 있다.

당시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가 지역적으로 침체되고 다른 계층이나 인근 지역과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임주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임대주택 건설 반대나 갈등현상이 부각되었다.

최근 들어 소셜믹스가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주민갈등 때문이다.

임대 아파트도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나에 따라 우위가 결정되고

이러한 갈등 상황은 학문적으로도 관심을 받은 주제이다.

족이나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인데

여기에서 사회적 거리감이란 '우리'(we)와 '그들'(them) 사이를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이다.

영화 '기생충'은 사회적 거리감을 '냄새'를 통해 표현하고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적 요소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준에 의한 이분법적 선구기가 우리의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다면

선구기를 없애고 계층혼화를 위해 물리적으로 섞여놓는다고 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각자도생하는 척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행복은 그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社說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서둘러야

최근 3년 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6만8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에 접수된 미세먼지 민원을 분석해 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업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2016년 7637건, 2017년 1만9144건, 2018년 3만5813건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2월까지 5705건이 접수됐다.

겨울부터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민원이 폭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봄철에는 '초중고 야외활동 자제 등 관련 대책 요구'가 3090건으로 집중됐고

지난 겨울철에는 '생활 주변 미세먼지 유발 시설 반대' 관련 민원이 5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문으로 배우는 오늘의 속담

“채난 재산이 서투른 기술만 못하다”

자기가 지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한번 배운 기술은 죽을 때 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뜻.

Table with 2 columns: Information (대표이사, 회장, 발행인, 편집인, 편집국장) and Contact Info (본사, 서울취재본부, Tel, 1946년 3월 창간)

Table with 2 columns: Website (www.i-honam.com) and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은밀한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신체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는 다양한 정보들을 즉시 검색하고 습득하여 공유하면서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에 이러한 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신저와 sns 등 인터넷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따돌림 등의 형태였다면 요즘의 학교폭력은 채팅방 sns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대상을 괴롭히는 행태로 '사이버불링'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하는 '떼까'

채팅방을 나가도 다시 초대해 끊임없이 괴롭히는 '카톡감옥', 단체방에 초대받지 못한 채 괴롭힘을 당하는 '방쫓' 등이 해당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 명백한 범죄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죄책감마저 반감되며, 주위에서는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워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신고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또한 피해자는 온라인의 과급력으

로 신체폭력 그 이상의 정서적 고통과 상처를 온전히 혼자 감당하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앞장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폭력 없이 바르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재용 / 순천경찰서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Convergence)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and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